

### 상표에 부는 복고 바람 특허청, 상표 'Newtro' 트렌드

상표에 복고풍이 불고 있다. '새롭다(New)'와 '복고풍(Retro)'이 합쳐진 일명 뉴트로(Newtro) 열풍이다.

19일 특허청은 뉴트로 감성이 10~20대의 젊은 소비층에게 관심을 끌면서 복고풍 이목을 가진 음식점 등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출원된 상표를 분석한 결과 스텝당, 미포당, 민가옥, 솔포옥 등과 같이 표지에 음식점을 나타내는 접미사인 '당', '옥'을 붙인 상표가 두드러지게 증가 중이다.

분석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00당' 형태의 상표는 모두 118건이 출원됐으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288건이 출원돼 최근 5년간 2.4배나 증가했다. 올해도 1분기까지 25건이 출원돼 현 추세라면 지난해 출원 건수(94건)를 넘어설 전망이다.

'00당' 상표 중에서 가장 먼저 출원된 상표는 우리나라 1세대 재계장 창업주인 허 신창근씨가 1964년 10월에 출원해 등록된 '배국당'이다.

'옥'을 포함한 상표도 이전 5년간 167건에서 최근 5년간(2014~2018년) 317건으로 1.9배 가량 늘었고 올해도 1분기까지 24건이 출원됐다.

또 '식당'이나 '상회'를 포함하는 상표도 지난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최근 5년(2014~2018년)간 식당, 상회를 넣은 상표가 각 548건, 120건이 출원돼 이전 5년간 나온 139건, 27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특허청은 뉴트로 열기가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50~60대 중장년층에는 젊은 날의 향수를 자극하고 젊은 소비층은 이들 표장을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소비자트렌드 분석센터는 올해를 주도할 트렌드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요즘 옛날, 뉴트로'를 꼽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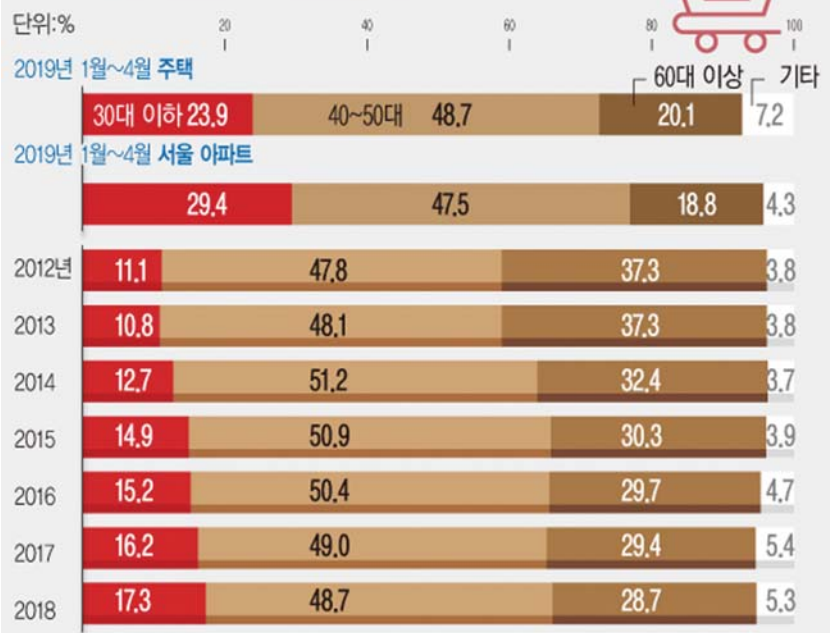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젊은 층은 옛것을 낡은 것이 아닌 신선하고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뉴트로 감성이 소비층의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복고풍의 상표 출원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스

# 청년층, 주택시장서 급부상 넷중 하나 30대 이하 '큰손'

### 30대 이하 주택매입, 20% 첫 돌파...60대 이상 추월

#### 전국 주택 매입자 연령대별 추이



자료: 한국감정원

매월 역대 최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 중인 가운데, 올해 30대 이하 청년층이 주택시장에 큰 손으로 급부상 중이다.

19일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거래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주택 구입자 20만2112명 중 30대 이하는 23.9%(4만8362명)를 차지했다.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은 감정원이 2012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연도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2012년 11.1%, 2013년 10.8%로 10%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후 ▲2014년 12.7% ▲2015년 14.9% ▲2016년 15.2% ▲2017년 16.2% ▲지난해 17.3%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또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40~50대(48.7%)에 비해서는 적지

만, 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20.1%)을 추월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기도 했다.

청년층 주택매입자들은 아파트 편식 현상이 크다. 올해 1~4월 30대 이하가 매입한 주택 4만8362호 중 아파트는 3만5794호로 74.0%의 비중을 차지했다.

집 한 채에 수억을 호가하는 서울도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경우 30대 이하의 매입비중이 29.4%로, 전국 평균(28.1%)을 웃돈다. 자치구별로는 주로 성동구(38.4%), 영등포구(36.5%), 강서구(35.7%), 광진구(34.8%), 노원구(34.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청년층 집단 내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설문조사나 각종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 내에서도 주택 구입에 대한 태도가 양극단으로 분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만 20세~만 34세) 가구 중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71.0%로, 지난 2014년(63.5%)이나 전년(70.7%) 대비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2018년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혼집 마련에 '자가'와 '월세'가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가 비중은 34.9%로, 부모 세대(1998년 이전 결혼)13.8%에 비해 크게 늘었고 월세(보증부 월세·사글세 포함)도 16.5%로 역대 최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최근 급등했다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자 청년층에 주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고 있다"면서 "높은 집값에 주택 구입에 대해 포기한 집단 있는 반면 한 편에서는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집단으로 나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 주택시장에서도 청년층이 새로운 주택 구입 계층으로 부상 중인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 위원은 "서울 집값이 소득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청년층은 아무래도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상당한 무리한 고풍지에 나섰다가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청년층의 주택 보유에 대한 태도 변화는 주택시장 자체로서는 긍정적이지만, 부의 대물림에 대한 논란과 하우스푸어(집 가진 빈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스

## 대졸실업자 2년만에 또 사상최고

### 1년 전 비 2만9000명 증가한 6만3000명...청년층 절반

지난달 대졸 이상 실업자 수가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대학교를 포함한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9000명(5.0%) 증가한

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대졸 이상 실업자 중에선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대졸 이상 실업자 수 51만000명 중 15~29세 청년

층이 22만4000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범위를 30대까지 넓혀 보면 총 35만5000명으로 비중이 더욱 커진다.

통계 당국은 공무원 시험 접수가 있었던 지난달 실업자로 잡힌 '공시족' 청년층이 유독 많았던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서울, 광주, 세종 등을 제외한 9개 시·도에선 지방직 시험 접수가 4월 중에 이뤄졌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2067.69) 대비 11.89포인트(0.58%) 내린 2055.80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17.59) 대비 3.46포인트(0.48%) 내린 714.13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91.50원) 대비 4.20원 오른 1195.70원에 마감했다.

## 고공행진 환율, 디플레 우려엔 '보약'?

원·달러 환율이 최근 계속해서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고공행진하는 환율로 인해 외국인 자본 유출 등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Deflation) 가능성을 줄이는 데는 '보약'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율이 오르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물가를 부양한다. 우선 수입 물가가 오른다.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면 같은 달러 가격의 수입물품 가격도 10% 오르기 때문이다. 수출 물가 역시 상승한다. 수출물가를 계산할 때 원화를 이용하는데 달러당 원화 가치가 오르면 수출

### 환율 오르면 물가도 함께 상승...저물가 해소할 수도

### 경기침체-물가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

올은 지난 한 달간 60.9원(5.3%) 올랐다. 장미감 기준 지난달 17일 1134.8원이던 환율은 지난 17일 1136.7원까지 올랐다. 7거래일 연속 상승한데다가 지난 2017년 1월 11일 이후 약 2년4개월만에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환율 상승이 경제 문제로 불거진 디플레이션 우려를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입 물가나 수입 원자재를 사용한 최종재의 물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기업활동이 정체되고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난 2일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이래 4개월째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현 상황을 '준(準) 디플레이션'으로 정의했다. 8월에는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물가 환산 가격도 같이 상승하게 된다.

수입 원자재를 이용해 만든 최종재 가격도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환율 상승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오르면 원유를 가공해 만든 휘발유나 경유, 플라스틱 등의 제조비가 상승해 최종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물가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일정기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납품 계약 등은 6개월이나 1년 등 장기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환율 변화를 바로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가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 전문가는 "아직까지 환율 상승이나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환율이 오르고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